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반계 고등학교  
기악 활동 인식 조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다 영

일반계 고등학교  
기악 활동 인식 조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다 영

# 인 준 서

이다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악수업 실태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인식과 현재 적용 중인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해설서 내용과의 적절성을 토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밝혀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4곳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화상담 및 학교 방문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학교 마다 한반 씩 총 14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구를 실행한 후, 학교마다의 기악수업 실태와 학생들의 인식을 문항별로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모든 학교가 기악 활동 수업 및 평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게 지도되어 개인적 음악활동의 경험이 적은 일반계 학생들에게 기악활동 수업에 대한 인식은 흥미위주의 학습으로 그쳐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학생들은 기초적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표현하기와 음악 만들기 활동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심화된 학습으로 창의성을 표출 할 수 있는 활동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기초적 주법, 악곡 다루기에 따른 단순한 학습 활동이 주가 된 교사의 지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심화된 학습 단계의 적용은 학생들에게 부담감 조성을 나타냈다.

셋째, 학교마다 기악수업 시간에 사용된 악기는 단소, 오카리나, 리코더, 피아노로서 가락악기 외의 다양한 악기를 학생들이 접하기에 부족함을 나타냈으며, 한정된 악기로 획일적 음색의 활동을 이루고 있었다.

넷째, 학생들은 활동을 생활 속에 활용하고 몸소 실천하는데 어려워하여 생활화 학습의 연계에 자연스럽지 못했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실행하는데 낮은 의욕을 보였다. 학생들에게 기악활동은 수업시간 내의 한정된 경험으로 나타나 더욱 포괄적인 생활화 연계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악활동 수업 방안을 모색해보며, 2013년에 적용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에 따른 활동으로 활용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흥미유발의 효과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활용한 표현 활동으로 목표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외부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여 영상, 춤 등을 통합한 창의성을 표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며, 주변의 소재를 연계한 생활화의 실천을 통해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전공자에게도 기악활동의 특성을 일깨워주고, 청소년기의 감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주어 전인적 성장과정에서 소통의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는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절차 .....	3
3. 연구의 제한점 .....	4
<b>II. 이론적 배경</b> .....	5
1.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	5
2. 기악교육의 필요성 .....	15
3. 선행연구 .....	19
<b>III. 조사 연구</b> .....	21
1. 연구 대상 .....	21
2. 연구 절차 및 분석 .....	22
3. 연구 도구 .....	22
<b>IV. 분석 및 결과</b> .....	25
1. 기초 조사 .....	25
2. 학생 설문지 분석 .....	29
3. 적절성 연구 .....	46
<b>V. 결론 및 제언</b> .....	49

## 참고문헌

##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표 1] 영역구성 .....	6
[표 2] 표현하기 활동 내용 .....	8
[표 3] 악기 연주하기 활동 내용 .....	9
[표 4] 음악 만들기 활동 내용 .....	11
[표 5] 감상하기 활동 내용 .....	11
[표 6] 음악적 표현과 소통 내용 .....	12
[표 7] 총 연구 대상자 .....	21
[표 8] 기초 조사 구성내용 .....	23
[표 9] 학생 설문지 구성내용 .....	24
[표 10] 기초사항 내용 .....	25
[표 11] 음악 수업에 대한 인식 .....	29
[표 12] 음악 수업 시간에 흥미 있는 활동 .....	30
[표 13] 음악 수업의 필요성 .....	31
[표 14] 악기를 배운 경험 .....	31
[표 15] 악기를 배우게 된 동기 .....	32
[표 16] 기악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	34
[표 17] 악기실력 만족도 .....	34
[표 18] 기악 수업에 대한 인식 .....	35
[표 19] 악기를 배우며 얻은 부분 .....	36
[표 20] 합주활동 경험 유무 .....	36
[표 21] 합주활동을 통해 느낀 점 .....	37
[표 22] 기악 수업의 필요성 .....	39
[표 23] 기악 수업이 필요한 이유 .....	39

[표 24] 기악 실기평가의 중요성 .....	40
[표 25] 평가 시에 가장 부담이 되는 활동 .....	40
[표 26] 악기 연주하기 평가에 부담이 되는 이유 .....	41
[표 27] 실기평가를 위해 연습한 시간 .....	42
[표 28] 참가하고 있는 음악 활동 .....	42
[표 29] 앞으로 기악 수업에 대한 생각 .....	43

## 그림 목 차

[그림-1] 배우고 싶은 악기 (국악기, 서양악기) .....	33
[그림-2] 생활화 실천 여부 .....	38
[그림-3] 생활화를 실천한 음악 장르 .....	3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로, ‘음’의 매개체를 통해 개인의 감정을 상징화 하여 모든 시대를 아울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 음악이 인간에게 교육으로 행해지면서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주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시켜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전인적인 인간양성을 목적으로 음악교육이 예로부터 인간의 삶의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음악교육계의 학습 환경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2007 개정 음악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함께 고시되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육과정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다.<sup>1)</sup>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다른 교과와 통합되어 음악 교과의 독립성마저 사라져 갈 위기이다. 정책이 발표된 모든 원인은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이였지만, 음악 교과만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비평을 받으며 복잡한 교권 속에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의미마저 줄어드는 추세이다.<sup>2)</sup>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민한 감성을 지닌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교폭력, 왕따, 자살, 가출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음악활동을 통해 심미적 경험에 따른 음악적 표출을 이루어 냄으로써 마

---

1)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해설 9, 제 2007-79호, 음악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2) 민경훈, 음악교육연구,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의 안정을 느끼고,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여 사회에 나아가 폭 넓은 관계형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음악교육 철학자 엘리엇(D.J.Elliott)은 실천 주의적 음악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적 실행에 참여하여 음악하기의 경험을 배우는 과정을 음악교육의 본질이라 여겼다. 심미적으로 음악을 앉아서 느끼도록 하는 것보다 실음의 악기 혹은 목소리를 통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배워 가는 것을 주장하였다.<sup>3)</sup>

특히 음악교과 안에서의 기악 활동은 다른 영역에서 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제시해 준다. 기악은 17~18 세기경부터 눈부신 독자의 세계를 개척해 오며 악기가 지니고 있는 다채로운 음색과 표현 기교의 다양성은 많은 음악가들에게 자유롭고 풍부한 악상의 세계를 열어 놓았다.

학생들이 악기를 다루며 다양한 형식과 기법으로 폭 넓은 음악적 체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은 기악활동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악기 시설 구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창활동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창활동은 음악표현에 있어 신체의 한계에 부딪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악기를 매개체로 신체를 뛰어넘는 풍부한 음악의 묘미를 제공해 준다면 더욱 효율적인 음악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처럼 기악활동은 음악학습에 활기를 불어 넣고 연주를 통한 자아실현의 경험을 주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는데 바탕을 마련해 주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악활동 수업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이론적 내용과 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인식과의 적

---

3) 권덕원, 한국국악교육학회, 데이빗 엘리엇의 실행 중심의 음악 교육 철학이 음악교육에 끼치는 영향

절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기악수업 지속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 내용 및 절차

이 연구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학문적 배경이 되는 II장에서는 연구 대상에게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앞으로 적용될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체계에 제시된 일반계 고등학교의 목적에 맞는 기악활동 이론 내용을 서술한다. 이를 토대로 기악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성을 일깨운다.

둘째, 본격적인 연구가 실시되는 III장에서는 먼저 전화 상담 및 학교 방문으로 조사할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악수업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교사 대상의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여 기초 조사를 한 후, 기초 조사를 토대로 학생 대상의 설문지를 작성, 배포한다.

셋째, IV장에서는 수행한 연구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으로 기악수업을 경험하고 배움을 얻었는가에 주안점을 두어 실태 결과를 도출한다. 함께 실태 연구 결과와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보며 적절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적용될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기악활동 수업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을 서울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중 4곳만을 지정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은 모두 1학년으로 각 반씩 교사의 추천을 통해 한정되어 이루어 졌다.

셋째, 모든 연구 내용은 기악 활동영역 수업 중심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이해, 생활화 영역은 제외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 1) 음악 교과의 목적

연구 목적에 따라서 기악활동 내용과 관련된 과목만을 선별하여 서술한다. 그 과목은 2007 개정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음악실기, 2009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음악과 생활 과목으로 다음과 같다.

2007 개정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 과목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여 음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창의성 계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게 함으로써 전 생애를 통하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sup>4)</sup>

2007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음악 실기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과목에서 활동영역의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내용을 연계·심화한 것으로 음악에 관한 미적인 이해, 체계적인 지식과 음악적 기능을 토대로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sup>5)</sup>

2009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음악과 생활 과목은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즐거운 도구로서 생활 속의 음악이 지니는 역할과 가치를 깨닫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sup>6)</sup>

4)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해설 9, 제 2007-79호, p.12~17.

5)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해설 9, 제 2007-79호, p.66~68.

이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과목은 실음을 통한 활동 중심으로 전인적 과정을 학습자에게 경험시켜주어 개인의 표현 의식에 따른 음악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마다의 자율 교과 선택을 허가하여 개성에 맞는 창의적인 음악 표현과 공동체에 필요한 소통의 도구로 음악을 다루어 사회 통합을 위한 폭넓은 삶에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 2) 영역 구성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악활동과 관련된 영역을 선별하여 서술하였으며, 각 교육과정 별 영역 구성은 [표-1]과 같다.

[표-1] 영역 구성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	<b>활동</b> - 표현하기 - 악기 연주하기 - 음악 만들기 - 감상하기	음악과 생활	음악적 표현과 소통
	<b>악기 연주하기</b> - 독주, 중주, 합주하기		
음악 실기	<b>음악 만들기</b> - 즉흥 표현하기		
	<b>감상하기</b> - 공연, 매체 음악 감상하기		

6)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p.18~19.

2007 개정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과목 영역은 이론적 학습에 반하여 활동중심의 음악교육을 강조하며 이해영역 앞에 활동영역을 크게 표현하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로 세분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음악 실기 과목 영역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활동영역을 연계·심화하여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대 영역과 중 영역을 선택적으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중 영역으로 악기 연주하기는 독주하기, 중주하기, 합주하기가 있으며, 음악 만들기는 즉흥 표현하기, 감상하기는 공연, 매체 음악 감상하기가 있다.<sup>7)</sup>

2009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음악과 생활 과목 영역은 사회적으로 음악이 지니는 다양성을 이해하여 국가의 발전과 이상을 실현하는데 창의적인 표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에 주요점을 두어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 3) 내용 체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음악실기 과목 내용은 구체적인 음악활동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학교 내외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sup>9)</sup>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생활 과목 내용은 음악적 표현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고 사회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

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해설 9, 제 2007-79호, p.1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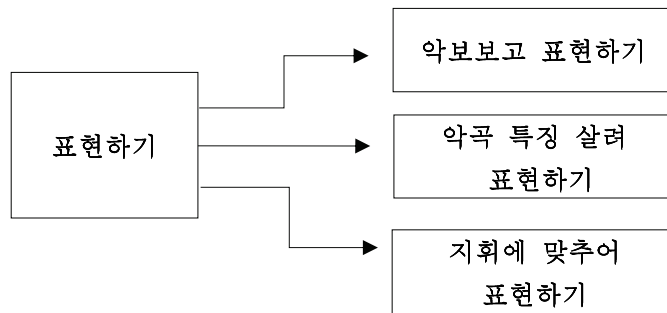
8)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p.19~25

9)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해설 9, 제 2007-79호, p.18~29.

각 교육과정 별 자세한 내용은 기악활동과 관련된 내용 체계만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공통 기본 교과와 선택 중심 교과 내용을 통합하여 서술한다.

(1)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표현하기 활동

[표-2] 표현하기 활동 내용



표현하기 활동은 타 영역과 공통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며 직접적인 행위를 일으켜 자신을 표현하고 음악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하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 표현하기 활동을 더욱 세분화 하여 악보 보고 표현하기, 악곡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지휘에 맞추어 표현하기로 제시하고 있다.

악보 보고 표현하기는 모든 음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보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보로 표현된 음악을 정확하게 소리로 나타내야 한다. 음악적 표현 능력과 자기 주도적 음악 활동 능력을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음악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연주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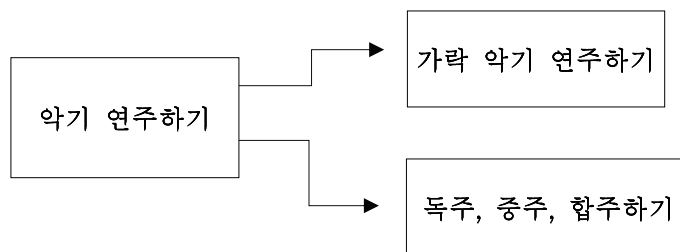
10)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 p.20.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활동은 악곡에 쓰여진 다양한 요소들 (국악의 장단, 가락, 시김새, 형식, 악곡의 쓰임 등과 서양 음악의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개념의 학습과 활동을 연계하여 나타낸다. 모든 악곡은 곡의 특징을 드러내는 음악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악곡의 특징적 요소들을 파악하게 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이 활동의 주안점이다.

지휘에 맞추어 표현하기는 주로 합주 활동과 함께 이루어 학생들에게 협동심 및 사회성을 길러 주는 중요한 음악 경험 중 하나이다. 지휘자의 움직임에 따라 악곡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며, 지휘자와 단원들 간에 일체감을 느낀다.

## (2)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악기 연주하기 활동

[표-3] 악기 연주하기 활동 내용



악기 연주하기 활동은 노래 부르기에 비하여 음색의 다양화,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 무한한 기교의 가능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감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이다. 초, 중학교를 거치면서 학습한 기초적인 이해와 주법, 독보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주어진 악곡을 정확하

게 연주하는 단계를 넘어서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성을 살리는데 주가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의 악기 연주하기 활동은 더욱 세분화하여 가락 악기 연주하기, 독주, 중주, 합주하기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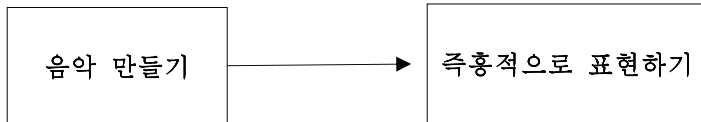
가락 악기 연주하기 활동은 가락 악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색과 음역, 주법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하며, 음악적 감각을 좀 더 민감하게 자극시킨다는 점에서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 자체로 학생들에게 매우 큰 음악적 동기와 감동을 부여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심화된 악기 주법과 악곡에 대해 정확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으로 자신의 느낌을 악기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독주하기 활동은 바른 자세, 정확한 주법, 좋은 음색의 조화로 연주를 이루었을 때 음악적인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전제 조건이 된다. 악기 종류에 맞는 기초적 기능을 익혀 음악의 맥락에 어울리는 소리를 내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접하여 연주 양식에 알맞은 특징과 분위기를 살리는 연주 기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주, 합주활동은 자신의 파트를 독자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파트나 악기의 소리를 듣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경험한다. 음악적 독립성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각 악기의 어울림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끝에 이해심, 협동심, 책임감을 고취시켜 하나의 통일된 음악을 만들어 가는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 (3)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음악 만들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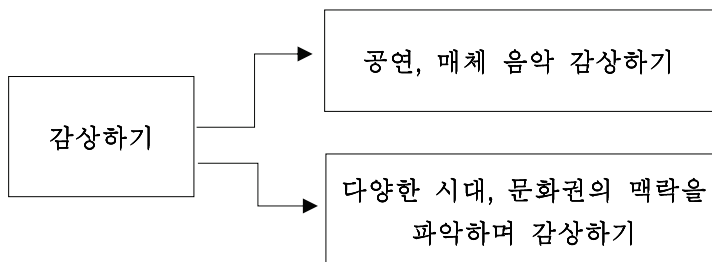
[표-4] 음악 만들기 활동 내용



음악 만들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음악 창조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의 예술적 창의성을 가장 강력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악 학습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악보에 없는 음악적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음악적인 수단(악기 연주하기)으로 즉석에서 표현하도록 하고, 학생에게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개념과 원리, 연주 능력이 함께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예술적인 구조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연주 실력 발휘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악기로 수준에 맞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역할 수행을 함으로써 창작을 이끌어 낸다.

### (4)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감상하기 활동

[표-5] 감상하기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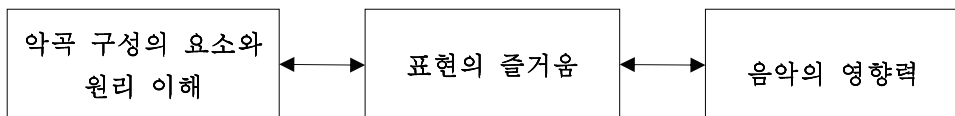
감상하기 활동은 학교를 벗어나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연 시설,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실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현장을 찾아가 듣거나 현대의 매체(TV, 인터넷, 휴대전화 등)를 사용하여 자신이나 동료가 연주하는 음악을 녹음하고 듣는 활동으로 소리에 대한 애착과 의욕을 강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더 나아가 감상하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시대,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음악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음악이 갖는 개별적인 특성과 가치를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와 연관시켜 폭넓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감상은 상황에 따라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아래 학습되어 지며 수행평가나 과제를 통한 연계학습으로 이루어진다.

#### (5)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음악적 표현과 소통

2009 개정 음악과 생활 교과에서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내용은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악곡 구성의 요소와 원리 이해,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표현의 즐거움,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로 제시된다. 모두 통합적으로 학습하며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표-6] 음악적 표현과 소통 내용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활동은 악곡을 구성하는 요소(리듬과 화성, 장단과 가락, 셈여림과 빠르기, 음색의 변화, 짜임새, 형식 등)와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악곡을 변형하거나 영상,

춤 등을 활용하여 음악의 특징을 살려 표현해본다. 함께 인간의 감정과 정서(화해, 동질감, 위로, 휴식, 자존감, 용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적 사례를 연계하여 여럿이 음악 활동을 이루고 협업의 즐거움과 소통을 경험한다.

#### 4) 평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여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활동을 모두 표현하는 활동과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진술하고 있다.<sup>11)</sup>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악활동과 관련된 자세한 평가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연구대상에 따른 10학년 기준으로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를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악기 연주하기 활동 평가는 표현하기 활동과 연계하여 악곡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특징을 살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평가한다. 자세, 호흡, 바른 주법, 연주 기능의 수월성 등의 기초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악곡을 해석하는 음악적 표현력 능력, 창의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음악 만들기 활동 평가는 학생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학생 개개인의 음악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휘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악보를 통한 창작뿐만 아니라 기존 음악에 대한 재구성,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음악 만들기 등으로 확산해 나아가도록 한다. 악보

---

11) [www.kice.re.kr](http://www.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학기술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 평가기준.

에 얽매이지 않고 기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유로운 선택과 표현을 허용하여 부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감상하기 활동 평가는 다양하게 접한 음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와 소통의 도구로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의 표현 요소 및 음 현상에 대한 감지력, 민감한 반응력을 살펴보고 심미적 감수성을 이루어 학생들의 체험 범위와 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음악의 요소를 바르게 인식하고 내용을 자주적으로 이해하여 음악 작품의 구성을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음악을 마음으로부터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2. 기악교육의 필요성

### 1) 청소년기 기악교육의 효과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에릭슨(Erikson)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성격발달을 단계별로 연구하여, 특히 청소년기 때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하면 인생관, 가치관의 혼란으로 방황을 할 수 있으며, 동료애가 강한 시기에 인간관계의 친밀감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을 고립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sup>12)</sup>

아직 미성숙한 단계의 청소년은 적절한 행동유형의 규범을 판단하는데 어려워 부적응하고 스트레스로 쌓아 표출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쉽게 일으킨다. 이에 따라서 김상철(2007)<sup>13)</sup>은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분노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고등학생 대상의 실험집단, 비교집단을 나누어 음악이 적용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음악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대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악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분노가 가장 감소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활동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경험을 증명해주었다. 이처럼 음악은 불안정한 청소년기 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본래의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노래에 맞추어 손뼉을 치거나 물건을 두드리며 즐기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 자연스레 즐거움을 선사한다. 칼 오르프(Carl Orff)는 언어를 통

12) 이옥형 외2인, 교육심리학, 집문당, p.131~136.

13) 상담학연구, 2007, Vol.8, No.4, 1605-1622.

한 리듬 표현에서 기악적 접근으로 연계하여 쉽게 음악활동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느끼게 하였다. 함께 자유로운 즉흥연주를 통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간혀 있는 감정을 표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sup>14)</sup>

청소년기에 접하는 음악은 감정을 이입하기에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되어 마음을 표현하기에 유용하다. 이에 기악적 도구가 더해 질 경우, 정확한 음감과 풍부한 체험을 제공해 준다. 또한 합주활동의 경험은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홍승연(2009)<sup>15)</sup>은 합주활동에 따른 교수학습을 제안하여 경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질서, 협동, 타인의 존중을 배울 수 있는 합주활동 실현에 앞장섰다. 이처럼 청소년기 때 기악교육은 배려와 협동, 서로간의 일체감 형성의 경험을 심어주어 무엇보다도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전반적인 발달을 이끄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 2) 일반계 학교에서의 기악교육 효과

기악교육은 악기의 소리를 듣고 탐구하는 기회와 음색의 질을 만들어 내는 경험을 통해 음악에 대한 감각과 분별력을 성장 시키며 음악적 잠재력을 계발 시키고, 창조적인 의욕을 자극시켜 창의력을 키워준다.<sup>16)</sup>

이처럼 다른 활동이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학교음악수업에서 기악활동은 악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악기의 범위로 한정되어 왔다. 또한 교육체제의 급속한 변화로 인

14) 현경실 외4인, 음악교수법, 학지사, p.147~155.

15) 홍승연, 합주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현방안 모색, 음악교육공학, 2009, Vol.9.

16)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출판사, P.85.

해 음악수업 시수 부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음악 활동, 통합교육과정으로 사라져가는 음악교과의 문제점을 맞으며 학생들은 입시의 부담으로 음악적 활동을 쉽게 중단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기악교육은 ‘신체의 연장으로서 음악적 표현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도구’ 라는 의미로 악기를 정의하게 되면 학교교실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악활동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고가의 악기로 여겨졌던 악기들도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단적으로 악기를 활용하는 기악수업이 가능해지고 있다.

혼란스러운 교육환경 아래에서 기악교육이 눈에 띄게 사라져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효율적인 운영 및 지도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기악교육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sup>18)</sup>

첫째,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연주자를 위한 기술의 연마보다는 음악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기악교육이 적용되어 저야 함이 필요하다. 중학교 때는 기악 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학습에 그쳤다면, 고등학교 때는 다양한 형식의 악곡을 접하고 신체적 조건을 넘어서 표현이나 기능,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울림 등을 확장시켜 음악의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악교육을 통해서 음악의 보편적 생성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음악적 도구인 악기에 대해 일어나는 보편적 호기심은 다른 수업에서 줄 수 없는 자연적인 동기를 학습자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

17) 민경훈,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위기, 음악교육연구, 2009, Vol.37, p.1~33.

18)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음악), p.17, 석문주 외 3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06, p.169~171.

서는 기악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해의 학습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셋째,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기악활동은 기악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음악하기’의 경험을 제공한다. ‘음악하기’의 경험은 음악교과의 본질적 목적 가운데 하나이며, 이러한 경험은 학습자로 하여금 더 큰 음악적 경험을 위해 악기 기능의 연마를 위한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문화와 함께 이해함으로써, 교내외의 사회, 문화적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악곡의 내용을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면서 감상하게 한 후,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악곡의 내용 및 배경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감상활동과 통합된 학습으로 청각, 시각적 경험을 심어주고 창의적인 해석으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기악교육의 경험으로 인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학습자가 보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자가 되도록 돕는다. 학교에서의 기악활동은 개인별 독주의 형태로 경험될 수도 있지만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합주에서 연주자 개인의 기악적 표현을 전체 음악적 공간에 조화롭게 위치시키고 연주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간에 느낌과 호흡 등의 비언어적 소통능력을 길러줄 수 있음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의 교과들 가운데 공교육기간이 지난 후에도 평생 동안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기악교육은 학습자가 공교육 기간의 종료 이후에도 평생 동안 여가나 취미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 안과 밖에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인식을 시켜줄 수 있음이 필요하다.

### 3. 선행연구

기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천승현(2003)은 “포괄적 음악교육에 의한 기악수업 연구”로서 MMCP 나선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실음을 통한 연계학습으로 기악수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리코더, 단소 악기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합적인 수업 안을 교사에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음을 감각적으로 지각하여 개념학습을 쉽게 이해하고 더욱 창의적인 표현으로 흥미있는 기악수업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었다.

주승진(2009)은 “고교 음악교과서 기악영역에 관한 분석연구”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 준거한 8종 교과서를 학습내용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며 교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효과적인 기악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재 활용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가창영역에 편중되어있는 활동, 다양한 악기 연주법 제시 부족, 학교의 교구·시설 등의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나타내며 교사의 효율적인 악기배열을 통한 제제곡 선택과 창의적인 교재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권성애(2012)는 “중학교 1학년 중심으로 음악교과서별 기악곡 분포조사”를 연구하여 2007개정 교육과정에 준거한 16종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활동영역의 연주하기에 초점을 두어 기악곡의 개수, 형태, 악기의 종류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서양악기 및 외국 곡에 치중되어있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삼으며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균형있는 교재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허정화(2007)는 “기악교육과 음악 인지능력, 적성, 흥미도간의 상관성 연구”를 하여 각 가정에서 음악성 신장을 기대하며 행해지는 기악교육

이 학생의 실제적 음악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의 기악교육 경험의 유무와 음악에 대한 흥미도를 알고, 음악 인지능력,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조기 기악교육이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후천적으로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기악교육을 일찍이 경험한 학생이 능력 향상에 높은 점수를 띄는 상관관계를 밝혔다. 조기교육 경험의 중요도를 밝힘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기악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교사중심에 따른 교재분석 연구가 다수였으며, 학생 중심의 인식 및 실태 조사가 많지 않아 창의적인 인성을 기르기 위한 현행 음악교육과정에 적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조기교육과 관련된 기악수업 연구는 활발하나,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악활동 연구가 미흡하였고 비전공자에게도 기악활동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심어주어야 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입시주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기악활동 수업의 인식을 살펴보고,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기악활동 내용체계와 적절한 관련성 및 문제점을 찾아보며 앞으로의 기악교육 지속 발전을 위한 자료로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Ⅲ. 조사 연구

#### 1.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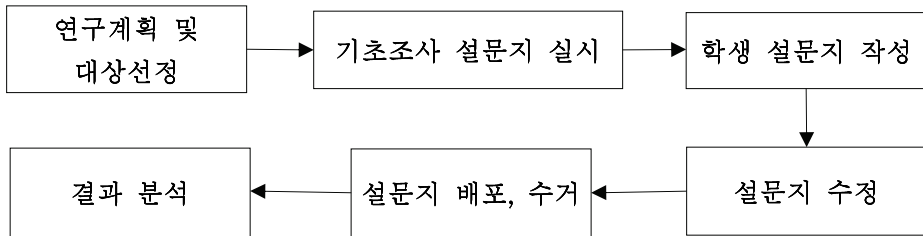
서울시 노원구 일반계 고등학교 15곳 중 기악 수업이 이루어진 학교는 총 13곳 이었다. 각 학교마다의 기악수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교사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간단한 질문과 설문지 참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참여를 꺼려하는 학교 4곳과 아직 기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5곳의 학교는 제외 하였으며, 기악수업 및 평가를 마치고 설문지 참여에 응해준 학교 4곳을 최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학교 4곳의 기악수업 형태를 자세히 알고자하여 교사 4명을 찾아뵙고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1학년 학생 한반을 추천받아 직접 설문지 배포, 수거에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총 14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가 실시되었고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학생 1명을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7] 총 연구 대상자

구분	학교	인원
1	A여고	35명
2	B여고	37명
3	C여고	32명
4	D여고	35명
총 합계		139명

## 2. 연구 절차 및 분석



이 연구의 절차는 먼저 교사와 전화연결을 통해서 연구대상의 학교 4 곳을 선정한 후, 총 2번의 방문 협조를 부탁하였다. 첫 번째는 학교마다의 다양한 기악수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교 음악교과서 기악영역에 관한 분석연구(주승진, 2009)’,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박상미, 2005)’의 논문을 참고하여 교사 대상의 기초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09월17일~21일까지 방문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생 설문지를 작성한 후, 수정 보완하고 10월 8일~12일까지 두 번째 약속 날짜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사용하여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한 자료와 함께 현행 교육과정 해설서와 비교해보며 적절성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 3.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교사 대상의 기초조사 설문지와 학생 대상의 인식조사 설문지이다. 단일 응답을 요구하는 개방형 질문 형태로 자세한 구성 내용은 [표-8], [표-9]와 같다.

[표-8] 기초 조사 구성내용

설문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수
기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li> <li>* 전공, 교직경력</li> <li>* 음악연수 참가횟수</li> <li>* 음악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li> <li>* 음악실 보유현황</li> <li>* 악기 보유시설 현황</li> </ul>	6
기악 지도 능력 및 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과서 만족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만족하지 않는 이유</li> </ol> </li> <li>2. 교과서에 수록된 기악활동 비율</li> <li>3. 음악수업시간에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그 이유</li> </ol> </li> <li>4. 가장 부담이 되는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그 이유</li> </ol> </li> <li>5. 주로 가르치는 악기</li> <li>6. 전통악기 지도능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 서양악기 지도능력</li> <li>6-2.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이유</li> </ol> </li> <li>7. 기악활동과 타 영역과의 연계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1. 한다면, 적용하는 영역</li> </ol> </li> <li>8. 기악활동에서 교과서외의 활용지도 방법</li> <li>9.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부분</li> <li>10. 기악합주 활동 지도 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1. 한다면, 사용하는 지도 방법</li> <li>10-2. 지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li> </ol> </li> </ol>	18
기악 실기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기악실기 평가 횟수</li> <li>12. 기악실기 평가의 중요도</li> <li>13. 악기 선택방법</li> <li>14. 곡 선택방법</li> <li>15. 학생들의 참여도</li> <li>16. 평가결과의 주요 활용 방법</li> <li>17. 앞으로 기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li> </ol>	7
총 문항 수		31

[표-9] 학생 설문지 구성내용

설문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수
음악수업 인식 조사	1. 음악수업에 대한 생각 2. 음악수업 시간에 가장 흥미있는 활동 3. 음악수업의 필요여부	3
악기의 관심 및 흥미도	4. 학교외의 장소에서 배운 여부 4-1. 있다면, 배운 동기 5. 앞으로 배우고 싶은 악기	3
기악 활동 수업 인식	6. 배웠던 내용 7. 악기실력 만족여부 8. 기악수업에 대한 생각 9. 악기의 배움을 통해 얻은 것 10. 합주활동 경험 여부 10-1. 있다면, 느낀 점 11. 악기를 배우고 난 후, 생활화 실천 여부 (음악 감상, 음악회 참여) 11-1. 있다면, 어느 장르의 음악 12. 기악수업의 필요도 12-1. 필요하다면, 그 이유	10
실기평가 인식	13. 기악 실기평가 중요도 여부 14. 평가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활동 14-1. 악기연주하기일 경우, 그 이유 15. 실기평가를 위해 연습한 시간	4
음악활동 및 의견	16. 현재 참가하고 있는 음악활동 여부 17. 앞으로 기악수업에 대한 의견	2
총 문항 수		22

## IV. 분석 및 결과

### 1. 기초 조사

일반계 학교대상으로 기악활동수업의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4곳의 학교에 교사 대상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 설문지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기초사항, 기악지도 능력 및 활용, 기악 실기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사항

[표-10] 기초사항 내용

구분	전공	교직 경력	음악 연수 참가 횟수	사용 교과 출판사	보유악기
A 학교	성악	26년	10회	태성	단소, 리코더, 오카리나, 피아노, 키보드, 심벌즈, 플루트, 트럼펫, 클라리넷, 색소폰, 일렉 · 베이스 기타
B 학교	국악	2년	1회	박영사	단소, 리코더, 피아노, 키보드, 멜로디언, 심벌즈, 장구, 북, 소고, 징, 팽과리, 바이올린, 일렉 · 베이스기타,
C 학교	작곡	22년	6회	금성	리코더, 피아노, 키보드, 심벌즈, 장구, 탬버린, 캐스터네츠, 바이올린,
D 학교	성악	25년	10회	박영사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실로폰, 큰 북, 작은 북, 탬버린, 심벌즈, 캐스터네츠, 바이올린, 첼로

연구대상의 학교 4곳 모두 기초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가 음악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B학교가 가장 국악기와 서양악기 종류를 관악기, 현악기, 가락악기, 타악기 등으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A학교와 C학교는 서양악기 종류와 달리 국악기 종류가 매우 부족하였고, D학교는 국악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A학교와 D학교의 교사는 같은 성악전공으로 교직경력 및 음악연수 참가횟수가 유사하였다. 음악수업 시간에 사용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박영사, 태성, 금성의 3종 출판사로서 각 학교마다 고르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B학교와 D학교는 박영사 출판교과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 2) 기악지도 능력 및 활용

교사의 기악지도 능력 및 활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악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지도 한 활동을 알아보았다. A, D학교는 교사의 전공과 관련하여 음악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기 활동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었고, B학교의 교사는 악기 연주하기 활동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아 다른 활동에 비해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하여 수업 운영의 고충을 반영하고 있었다. C학교의 교사는 음악수업 시간에 운영의 편리성 때문에 감상하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다.

반면에 지도에 가장 부담을 느낀 활동으로 A학교의 교사는 수업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악 만들기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C, D학교 교사는 악기 연주하기 활동, B학교 교사는 노래 부르기 활동으로 세 학교 모두 교과서 지도법 내용의 부족함을 나타냈다.

교사마다의 음악교과 만족도는 B, D학교 교사가 같은 박영사 출판 교과로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A, C학교 교사는 음악교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을 나타냈다. 교과서에 수록된 기악활동의 비율은 모든 학교의 교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기악활동 시간에 사용된 악기로 A학교는 단소, 오카리나, B학교는 단소, C학교는 리코더, D학교는 피아노로서 A학교만 유일하게 두 개의 악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악기를 사용하여 A, B, C학교 교사는 바른 자세, 연주법등의 기초적 음악학습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였고 D학교 교사는 테크닉 훈련 연습에 중점 지도하였다.

기악활동과 타 영역과의 연계성은 모든 교사가 중요하게 적용하였지만 창작, 생활화 활동의 연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교사마다 적용한 영역으로 A학교의 교사는 노래 부르기, B학교의 교사는 이해 영역, C, D학교의 교사는 감상하기를 연계하여 시청각 자료를 다수 활용하고 있었다.

합주활동 지도 여부는 C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A, B, D학교 교사 모두 합주활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A학교 교사는 교과서 지도법에 따라 합주활동 수업을 이루고 있었으며, B, D학교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교재로 지도하고 있었다. C학교 교사는 시간이 부족해서의 이유로 합주활동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 3) 기악 실기평가

기악 실기평가는 A학교를 제외하고 B, C, D 학교 모두 매학기 1회 실시 되었고 A학교는 단소, 오카리나의 두 개의 악기를 각각 사용하여 매학기 2회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악 실기 평가의 방식은 4곳의 학교 모두 교사가 하나의 악기를 선정하고 교과서에서 배운 곡으로 지정되었다. A학교의 교사는 긍정적인 평가의 결과를 얻고자 하여 과정에 우선시 된 학생의 열정과 노력을 파악하는데 평가의 주요점을 두었고, 학생들이 기악 실기평가에 적극적으로 흥미롭게 참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A학교의 교사와 달리 B, C, D 세 학교의 교사는 모두 학생들이 점수 때문에 부담을 갖고 평가에 참여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B학교의 교사는 학생의 연주 실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C학교의 교사는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였고, D학교의 교사는 교수-학습 계획과 방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기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A, C학교의 교사는 다양한 악기 연주법 습득을 위한 교재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B학교의 교사는 기악활동이 음악수업에서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분리되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D학교의 교사는 음악시간 수를 늘려 기악활동의 충분한 학습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2. 학생 설문지 분석

기악 활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인식을 살펴보았다. 학생 설문지 구성은 음악 수업 인식, 악기의 관심 및 흥미도, 기악 활동 수업 인식, 실기 평가 인식, 음악 활동 및 의견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현재 학교 음악 수업에 대한 생각은?

[표-11] 음악 수업에 대한 인식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매우 흥미롭고 즐겁다	57	41.0%
②	정서적으로 도움을 준다	60	43.2%
③	흥미가 없어 수업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16	11.5%
④	공부에 방해가 된다	0	0.0%
⑤	기타의견	6	4.3%

“현재 음악 수업에 대한 생각은?”이란 질문에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도움을 준다(43.2%)’가 가장 높았다. ‘매우 흥미롭고 즐겁다(41.0%)’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음악 수업 시간은 학생들에게 대부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 음악 수업 시간에 가장 흥미 있는 활동은?

[표-12] 음악 수업 시간에 흥미 있는 활동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노래 부르기	34	24.5%
②	악기연주하기	31	22.3%
③	음악 만들기	2	1.4%
④	감상하기	72	51.8%
⑤	기타활동	0	0.0%

“음악 수업 시간에 가장 흥미 있는 활동은?”이란 질문에 ‘감상하기 (51.8%)’ 활동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비율의 응답은 ‘음악 만들기 (1.4%)’로 창작활동에 대한 흥미도는 미흡했다. 그 외의 ‘노래 부르기 (24.5%)’, ‘악기 연주하기(22.3%)’ 활동은 유사한 흥미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활동과 비교하였을 때 감상하기가 활동 요소가 적고 부담 없이 눈과 귀를 즐길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교에서 음악 수업이 필요한가?

[표-13] 음악 수업의 필요성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매우 필요하다	22	15.8%
②	필요하다	75	54.0%
③	보통이다	37	26.6%
④	필요하지 않다	5	3.6%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학교에서 음악 수업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필요하다(54.0%)’에 높은 응답을 하여 학생들은 음악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4) 학교외의 장소에서 악기를 배워 본 적이 있는가?

[표-14] 악기를 배운 경험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있다	116	83.5%
②	없다	23	16.5%

“학교 외의 장소에서 악기를 배워 본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있다(83.5%)’로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기악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었다.

(4-1) 있다면, 배우게 된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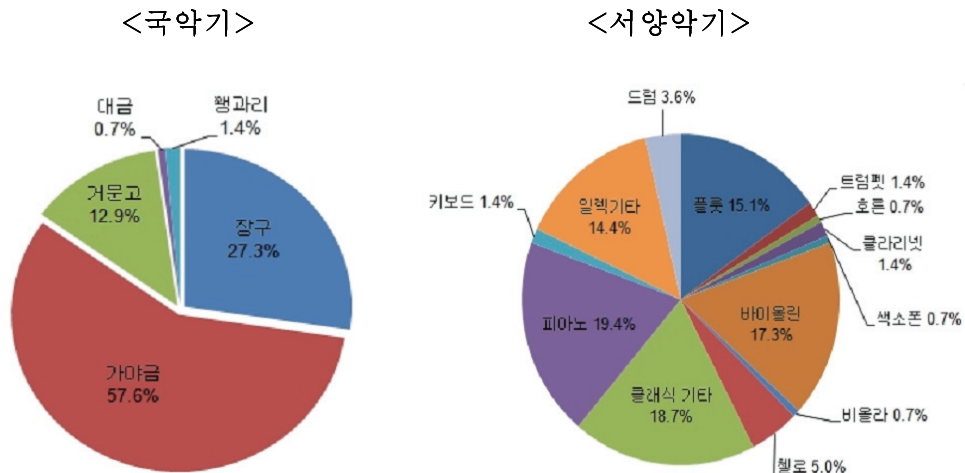
[표-15] 악기를 배우게 된 동기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부모님, 친구 권유	72	62.1%
②	TV, 인터넷을 통한 흥미	27	23.3%
③	악기실기평가를 위해서	3	2.6%
④	개인적 음악활동	14	12.1%
⑤	기타의견	0	0.0%

“학교 외의 장소에서 악기를 배우게 된 동기는?”이란 질문에 ‘부모님, 친구의 권유(62.1%)’가 가장 높았다. 그 외 소수의 응답으로 ‘TV, 인터넷에서 보고 흥미가 생겨서 배우게 되었다(23.3%)’, ‘개인적 음악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12.1%)’, ‘학교에서 악기 실기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 배우게 되었다(2.6%)’ 순으로 답해주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주위의 환경에 이끌려 기악활동을 접하게 된 동기가 컸으며 자발적인 의식에 따른 동기는 적었다.

(5) 앞으로 배워보고 싶은 악기는?

[그림-1] 배우고 싶은 악기



“앞으로 배워보고 싶은 악기는?”이란 질문에 국악기로 ‘가야금(57.6%)’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악기로 장구, 거문고, 뿃과리, 대금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서양악기는 ‘피아노(19.4%)’가 가장 높았고 클래식 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일렉 기타, 첼로, 드럼, 키보드, 트럼펫, 클라리넷, 비올라, 호른, 색소폰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주로 가락악기 종류와 악기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타악기 종류와 학교에서 주로 배우고 있는 악기는 제시되어 있었지만 선택되지 않으며 낮은 흥미도를 보였다.

(6) 기악 수업 시간에 주로 배웠던 내용은?

[표-16] 기악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연주하기	101	72.7%
②	음계 배우기	10	7.2%
③	이론적 내용	24	17.3%
④	곡 감상하기	3	2.2%
⑤	즉흥 연주하기	1	0.7%

“기악수업 시간에 주로 배웠던 내용은?”이란 질문에 ‘연주하기 (72.7%)’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외의 응답으로 ‘이론적 내용 (17.3%)’, ‘음계 배우기(7.2%)’, ‘곡 감상하기(2.2%)’, ‘즉흥 연주하기 (0.7%)’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기악수업을 통해서 제시된 곡을 연주해보고 악기를 다루는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즉흥 연주하기의 창작활동 경험은 매우 부족하였다.

(7) 학교에서 배웠던 악기실력에 만족하는가?

[표-17] 악기실력 만족도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어 만족한다	55	39.6%
②	좋은 소리를 표현해 낼 수 있어 만족한다	48	34.5%
③	악보를 보고 연주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13	9.4%
④	악기 다루기가 어려워서 만족하지 못한다	22	15.8%
⑤	기타 의견	1	0.7%

“학교에서 배웠던 악기실력에 만족하는가?”의 질문에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어 만족한다(39.6%)’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며 악보 읽기, 악기 다루기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 중 ‘악기 다루기가 어려워 만족하지 못한다 (15.8%)’가 높게 나타나며,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기초적 연주법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기타의견으로 ‘연습을 많이 못해서 만족하지 못한다(0.7%)’의 생각을 적어주었다.

(8) 기악수업에 대한 생각은?

[표-18] 기악 수업에 대한 인식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매우 즐겁고 흥미롭다	60	43.2%
②	악기를 다루는데 신기하다	56	40.3%
③	재미없고 지루하다	9	6.5%
④	악기를 다루기가 어렵다	9	6.5%
⑤	기타 의견	5	3.6%

“기악 수업에 대한 생각은?”이란 질문에 ‘매우 즐겁고 흥미롭다 (43.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악기를 다루는데 신기하다(40.3%)’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의 결과를 보이며, 기악 수업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호기심의 경험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 외의 학생들은 ‘지루하다’, ‘악기를 다루기가 어렵다(6.5%)’, 기타 의견으로 ‘배우고 싶은 악기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악기가 너무 뻘하여 흥미가 없다’, ‘시끄럽다(3.6%)’로 부정적인 경험을 적어 주었다.

(9) 악기를 배움으로써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은가?

[표-19] 악기를 배우며 얻은 부분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재미, 흥미로움	93	66.9%
②	감동	5	3.6%
③	정서적 안정	23	16.5%
④	만족감	16	11.5%
⑤	기타	2	1.4%

“악기를 배움으로써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은가?”의 질문에 ‘재미, 흥미로움(66.9%)’이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악기를 다루는데 있어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얻고 있었다. 반면에 그 외의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16.5%), ‘만족감(11.5%)’, ‘감동(3.6%)’ 순으로 응답하여 깊이 있는 배움과 보람을 얻는 경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도움이 안된다’, ‘모르겠다(1.4%)’의 부정적인 답변을 적어주었다.

(10) 기악수업 시간에 합주활동을 배웠던 적이 있는가?

[표-20] 합주활동 경험 유무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있다	63	45.3%
②	없다	76	54.7%

“기악수업시간에 합주활동을 배운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없다(54.7%)’가 높았다. 학생들에게 합주의 경험은 부족하였으며, 설문실시 도중에 합주의 의미를 혼란스러워 하고 의미에 대해 묻는 학생들이 많았다.

(10-1) 있다면, 합주활동에 대한 느낀 점은?

[표-21] 합주활동을 통해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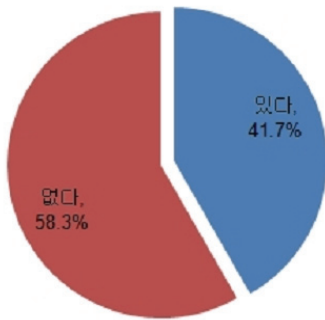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즐거움	20	31.7%
②	아름다운 화음을 통한 감동	12	19.0%
③	친구들과의 단합	27	42.9%
④	없다	4	6.3%
⑤	기타 의견	0	0.0%

합주활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친구들과의 단합을 느꼈다(42.9%)’가 가장 높았다. ‘즐거움을 느꼈다(31.7%)’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이며,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합주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소통,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외의 학생들은 ‘아름다운 화음을 통한 감동을 느꼈다(19.0%)’로 감성을 자극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에, ‘느낀 점이 없다(6.3%)’로 긍정적인 경험이 되지 못한 학생들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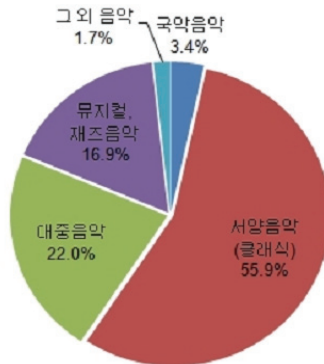
(11) 기악수업을 배우고 난 후, 관련된 음악을 찾아 감상하거나 음악회를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림-2]

(11-1) 있다면, 주로 어느 장르의 음악인가? [그림-3]

[그림-2] 생활화 실천 여부



[그림-3] 생활화를 실천한 음악 장르



“기악수업을 배우고 난 후, 관련된 음악을 찾아 감상하거나 음악회를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없다(58.3%)’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기악 활동 수업과 연계된 생활화 학습이 아직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실천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경험이 있다(41.7%)’로 응답한 학생들에게 “주로 어느 장르의 음악을 찾았는가?”의 질문에 ‘서양음악(클래식)(55.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의 음악 장르는 ‘대중음악(22.0%)’, ‘뮤지컬, 재즈음악(16.9%)’, ‘국악음악(3.4%)’, ‘오페라(1.7%)’ 순으로 나타났다.

(12) 학교에서 기악수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가?

[표-22] 기악 수업의 필요성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필요하다	128	92.1%
②	필요하지 않다	11	7.9%

“기악수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과반 수 이상이 ‘필요하다(92.1%)’의 높은 응답을 보였다. 비전공자이지만 기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2-1)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표-23] 기악 수업이 필요한 이유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직접 음악체험을 할 수 있어서	64	50.0%
②	악기를 다루며 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	19	14.8%
③	음악적 감정이 풍부해 짐을 느껴서	17	13.3%
④	취미생활로 할 수 있어서	26	20.3%
⑤	기타 의견	2	1.6%

‘기악수업이 필요하다(92.1%)’로 응답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접 음악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50.0%)’가 가장 높았다. 그 외의 학생들은 ‘취미생활로 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20.3%)’, ‘악기를 다루며 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 필요하다(14.8%)’, ‘음악적 감정이 풍부해짐을 느껴서 필요하다(13.3%)’ 순으로 대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심리적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재미있어

서(1.6%)’의 의견을 적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실음을 통해 직접적인 음악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기악수업의 특성이 학생들에게 큰 필요성으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학생들은 개인적인 정서의 경험으로 인해 기악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13) 기악 실기평가가 중요한가?

[표-24] 기악 실기평가의 중요성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중요하다	61	43.9%
②	중요하지 않다	78	56.1%

“기악 실기평가가 중요한가?”의 질문에 ‘중요하지 않다(56.1%)’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위의 문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들은 기악활동수업의 필요성을 높게 나타낸 반면에 평가의 실시는 ‘중요하지 않다’로 대답하였다. 결과적으로 흥미로운 경험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따라오는 부담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14) 음악실기 평가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활동은?

[표-25] 평가 시에 가장 부담이 되는 활동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노래 부르기	104	74.8%
②	악기연주하기	35	25.2%

“음악 실기 평가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활동은?”이란 질문에 ‘노래 부르기(74.8%)’ 활동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악기 연주하기(25.2%)’는 낮은 응답을 나타내며, 노래 부르기 평가와 비교하였을때 악기를 매개체로 삼아 실시하는 평가가 학생들에게 부담감이 적음을 알 수 있다.

(14-1) 악기 연주하기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표-26] 악기 연주하기 평가에 부담이 되는 이유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악보 읽기의 어려움	15	42.9%
②	음계(도, 레, 미) 다루기의 어려움	7	20.0%
③	소리 표현의 어려움	8	22.9%
④	박자, 리듬, 장단 맞추기의 어려움	4	11.4%
⑤	기본적 자세, 연주법의 어려움	1	2.9%

악기 연주하기 평가에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악보 읽기의 어려움 때문이다(42.9%)’가 가장 높았다. 그 외의 학생들은 ‘좋은 소리로 표현하기 어려워서(22.9%)’, ‘음계를 다루기가 어려워서(20.0%)’, ‘박자, 리듬, 장단 등을 맞추기가 어려워서(11.4%)’, ‘좋은 자세, 연주법을 알기 어려워서(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악 평가에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악곡에 따른 기초적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5) 실기평가를 위해 연습한 시간은?

[표-27] 실기평가를 위해 연습한 시간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10분~30분	68	48.9%
②	1시간 이상	41	29.5%
③	2시간 이상	11	7.9%
④	3시간 이상	10	7.2%
⑤	4시간 이상	9	6.5%

“실기평가를 위해 연습한 시간은?”이란 질문에 ‘10분~30분(48.9%)’이 가장 높았다. 위의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평가의 중요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량의 시간으로 연습한 후, 평가를 이루고 있었다.

(16) 현재 참가하는 음악 활동이 있는가?

[표-28] 참가하고 있는 음악 활동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학교 동아리 및 특별활동	15	10.8%
②	종교단체 음악활동	9	6.5%
③	개인지도 및 학원	7	5.0%
④	없다	108	77.7%
⑤	그 외 활동	0	0.0%

“현재 참가하고 있는 음악활동이 있는가?”의 질문에 ‘없다(77.7%)’가 높게 나타났다. 비전공자의 이유로 음악활동과 관련된 요소가 매우 적었다. 그 외의 학생들은 ‘학교 동아리 및 특별활동(10.8%)’, ‘종교단체 음악활동(6.5%)’, ‘개인 지도 및 학원(5.0%)’순으로 나타나며, 위 문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기악활동수업 시간에 재미, 흥미로움의 경험보다 정서, 심리적인 경험을 느끼고 있었다.

(17) 앞으로 기악수업 시간에 대해?

[표-29] 앞으로 기악 수업에 대한 생각

답변	구분	인원	비율(%)
①	기본적 자세부터 천천히 기초를 배워나가고 싶다	23	16.5%
②	악보 보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33	23.7%
③	좋은 소리 내는 방법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다	59	42.4%
④	가족,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12	8.6%
⑤	악기수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	12	8.6%

“앞으로 기악 수업시간에 대해?”란 질문에 ‘좋은 소리를 내는 방법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다(42.4%)’가 높았다. 그 외의 학생들은 ‘악보 보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23.7%)’, ‘기본적 자세부터 천천히 기초를 배워나가고 싶다(16.5%)’, ‘가족,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8.6%)’ 순으로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악수업을 통해서 심리, 정서적인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심화된 음악 표현 학습을 선호하였고 그 외의 학생들은 기초적인 학습, 사회적 도구로서의 활용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 6) 설문결과 해석

이 연구는 기악활동수업에 경험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 음악수업, 악기에 대한 관심, 기악활동수업, 평가로 접근하여 앞으로의 기악활동 의지를 분석하였다. 자세한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음악수업 인식

학생들은 음악수업을 통해서 즐거움과 정서적인 도움을 경험하며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음악수업시간 내에서 선호하는 활동으로 감상하기 활동을 가장 선호하였고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순으로 창의성 중심의 음악 만들기 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보였다.

### (2) 악기에 대한 관심 및 흥미도

수업시간에 배웠던 악기의 관심도는 매우 낮았으며 개인적으로 생소한 악기보다 인지도가 있는 악기를 선호하여 국악기에서는 가야금, 서양악기로 피아노를 가장 배우고 싶어했다. 주로 가락악기 선호도가 높았고 타악기는 낮은 관심을 보였다. 악기를 접한 경험은 학교외의 장소에서 대부분 부모님, 친구 등의 타인의 권유로 인해 배운 경험이 많았고 자발적 의식에 따른 학습의 동기는 매우 적었다.

### (3) 기악활동 수업 인식

기악 수업시간에 주로 배웠던 내용은 악기 연주하기가 주된 활동이 되었으며 개인적 실력에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기악 활동수업은 학생들에게 매우 즐겁고 흥미로운 긍정적인 인식으로 경험되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음악체험을 갖는 기악활동의 특성으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기악 수업시간에 합주활동의 경험은 대체적으로 부족하였으나 경험을 가진 소수의 학생들은 합주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소통과 단합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악기의 사용으로 다양성 있는 합주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깊이 있는 화음의 감동은 얻지 못하고 있었다.

수업시간에 배운 경험을 토대로 한 생활화 실천여부는 부족했다. 비전공자로서 개인적 음악 활동이 미흡하여 음악을 찾아 감상하고 음악회를 참여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실천화 되지 못하고 있었다.

### (4) 기악활동 평가

학생들이 평가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연습한 시간은 10분~30분으로 소량의 시간을 사용하고 즐거움과 흥미 위주의 수업경험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노래 부르기 평가와 비교하였을 때 기악평가는 악기를 매개체로 삼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어 신체의 한계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 (5) 기악활동수업 의지

앞으로의 기악활동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심화된 학습을 원하고 있었다. 악기에 대한 기본적 자세, 기초적 학습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심리, 정서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소리, 아름다운 음악의 표현활동을 배워보고 싶어했다. 또한 한정된 악기다루기에 지루함을 느껴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경험하고 싶은 의지가 크게 나타났다.

## 3. 적절성 연구

기악활동수업 시간에 경험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해설서 내용과의 적절성을 살펴보려 한다. 크게 세 가지로 기악수업의 목적, 활동 내용, 평가로서 제시해 보았으며 자세한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기악 활동의 목적을 살펴보면, 기악활동이 다른 활동에서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특성을 살려 포괄적인 연계 학습에 따라 학생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생활화 하여 표현할 수 있는 심화된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기악활동의 목적의식을 살펴보면, 호기심, 즐거움에 따른 흥미위주의 학습목적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 인식은 교사의 지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기초적 주법, 악곡 다루기에 따른 단순한 학습 활동이 중점적으로 지도되어 연구 대

상의 학교 모두 흥미위주의 학습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창작, 표현하기의 학습 지도가 미흡하게 다루어져 학생들에게 심화된 학습은 부담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기악수업 시간은 흥미 유발의 활동 목적으로 그쳐 기계적인 악기 다루기에서 학습의 완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기악활동의 특성을 살린 심화된 학습을 이루지 못한 점으로 보아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목적과 적절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

## 2) 활동 내용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해설서에 제시된 기악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음악적 감각을 좀 더 민감하게 자극시키기 위해서 가락악기의 특성을 제시하고 무한한 기교의 가능성을 체험시키고자 하였다. 함께 독주, 중주, 합주 활동을 만들어가며 각 악기마다 어우러지는 음색의 조화를 이루어 총체적인 경험을 하도록 나타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기악 수업 시간에 사용된 악기는 각각 단소, 오카리나, 리코더, 피아노로써 모두 가락악기를 다루고 있었으나 획일화된 악기의 사용으로 한정된 음색의 경험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의 학교 모두 교사의 지도 아래 기초 주법학습과 단순한 악곡 다루기 활동에 주요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순한 연주 활동에는 자신감을 나타냈으나 심화된 학습 단계로 나아가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합주활동은 수업시간에 연구 대상의 학교 중 한 학교를 제외하고 세 학교가 합주활동을 모두 이루고 있었으나 학생들은 합주활동의 정확한

의미를 혼란스러워 하였고, 소수의 학생들만이 합주활동의 의미를 파악하며 친구들과의 단합, 음색의 조화를 느끼며 참여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의 단순한 학습활동 지도와 활동 내용에 대한 미흡한 의미 전달, 학교 환경에 따른 악기구비의 한계성은 학생들에게 총체적 음색 경험을 제공해 주기에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활동 내용과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합되지 못한 점을 보인다.

### 3) 평가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기악활동 평가를 살펴보면, 학습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한 과정 중심의 평가로 기초기능, 표현능력,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평가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평가를 위해 노력한 시간은 매우 적었다. 또한 표현 활동,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태도 학습의 구체적인 지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심화된 학습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표현능력과 태도의 평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하며, 일반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효율적인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일반계 고등학교의 환경 속에서 기악활동 수업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이와 같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창의적인 활동으로 기악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습자 중심에 서서 학생들의 경험에 따른 인식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함께 교육의 발단이 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해설서와 적절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적용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연계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악활동 수업과 평가에 대한 목적이 필요성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인적 음악활동의 경험이 적은 일반계 학생들에게 불분명한 학습 지도가 이루어져 기악활동 수업은 흥미 위주로 그쳐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심화된 학습으로 창의성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했다. 학생들은 표현하기와 음악 만들기 활동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으며 기초적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감성적인 표현의 도구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기악활동 수업이 이루어져야 함이 필요했다.

셋째, 한정된 악기의 사용으로 폭넓은 기악활동 수업의 경험을 이루고 있지 못했다. 악기마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음색과 조화를 느끼지 못하고 획일화된 음색으로 합주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였다.

넷째, 기악활동수업과 생활화의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비전공자의 이유로 기악활동수업의 활용방법에 대해 깨닫지 못하여 생활화의 실천과 밀접한 계기를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음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적용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해설서의 내용 및 목적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일반계 고등학교 기악활동수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협업의 활동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기악활동 수업은 흥미유발의 효과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심어 주어 심미적인 경험으로 확대되어져야 한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악곡을 편곡하여 나타내고 영상이나 춤 등을 통합하여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고 통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적 활동을 통해 문화적,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재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루어 생활화의 실천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앞으로 적용될 2009개정 교육과정의 해설서와 현장에서 경험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기악활동수업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비전공자 학생들에게도 기악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마련되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지닌 기악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김을곤, 2001, <새 악기해설>, 아름음악출판사  
김중혁, 2008, <악기들의 도서관>, 문학동네  
김석중, 1999, <나의 음악 이야기>, 새로운 사람들  
교육 과학 기술부, 2007-79호,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해설 9>  
백대웅, 2006, <인간과 음악>, 어울림  
석문주 외, 2006, <음악 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이홍수, 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이영호, 2003, <정신 건강론>, 현학사  
이옥형 외, 2010, <교육 심리학>, 집문당  
현경실 외, 2010, <음악 교수법>, 학지사

### 2. 논문

- 김세홍, 2010,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 조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철 외, 2007,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분노 감소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학술지논문  
권덕원, 1999, <데이빗 엘리엇의 실행 중심 음악 교육 철학이 음악교육에 끼치는 영향>, 한국 국악 교육학회 학술지논문  
권성애, 2012,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 별 기악곡 분포

조사-중학교 1학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경훈,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한국음악교육학회 학술지논문

박상미, 2005, <고등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현, 2006, <심리적 요인, 연습, 환경적 측면이 기악 학습 지속 의지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학술지논문

우승연, 2012, <2007 개정 중, 고등 음악교육과정과 현대 음악 교육철학의 연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경, 2011, <기악 연주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교육적 적용을 위한 탐색-관련 연구의 문헌적 고찰에 근거하여>, 교사교육연구 학술지논문

채로이아,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 한국음악교육학회 학술지논문

천승현, 2003, <포괄적 음악교육에 의한 기악수업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승연, 2009, <합주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현방안 모색, 한국음악교육공학회 학술지논문

허정화, 2007, <기악교육과 음악 인지능력, 적성, 흥미도간의 상관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홈페이지

<한국 검정 교과서> 홈페이지 <http://www.ktbook.com/>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교육 과학 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ncic.kice.re.kr/>

<태성 음악 교과서> 홈페이지 <http://www.umaks.kr/>

<금성 출판사> 홈페이지 <http://www.kumsung.co.kr/>

<고운소리 음악 연구소> 홈페이지 <http://gounsoril.cafe24.com/>

# ABSTRACT

## General high school Instrumental activities Perception

Lee, Da young

Major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not only problems reveals appropriate between 'revised curriculum in 2007' and 'student's recognition', but also finding the improvements by analyzing actual instrumental class performance in general high school.

As a basic actual research, four general high schools have been selected and were analyzed by phone & actual interview and survey. (The survey is done by 140 students, 1 class in each school)

This survey is made by several questionnaires about student's recognition in instrumental classes and actual school performances.

First of all, every school was performing indefinite instrumental classes, therefore general students, who have less experienced in music activities, were recognizing these classes as fun activities

rather than actual learning classes.

Secondly, students remained in basic musical level and felt burden for 'playing musics'. As a result, these instrumental classes could not make any creative circumstance with advanced program for high school educational system. Student's attitude can not be the only problem, since they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struction. According to over-focused basic playing and practicing skill classes, students obviously felt too much pressure when they joined advanced classes.

Thirdly, limited opportunity for playing various musical instruments in classes, such as piano, ocarina, flute and recorder, lead students to make standardized sound and performance.

Lastly, students had low motivation to spend time voluntarily to run the difficult practice to take advantage of the activities in life and the daily life of learning associated to unnatural did. Students to the plan of connection instrumental activities appeared more comprehensive daily life experience within the limited class time was needed.

These problem that appear more effective instrumental activities of general high school classes watching to find ways to improve, and should be able to be utiliz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ctivity applied in 2013, 2009 of the revised curriculum.

Therefore the effect of motivating activities to integrate video, dance, and creativity can be expressed externally prepared by a variety of environmental goals to further take advantage of the

feelings and emotions of the human expressive activities for students to instill in will be presented through the surrounding material in connection to the practice of daily life, and lessons that foster cultural, social ability to exercise.

Even Non-majored students also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activities and finally lead their emotions effectively by using as a communication skill during adolescence.

# - 부 록 -

##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설문지 참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학교 음악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기악활동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기악교육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리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사용 하겠습니다. 평소의 경험을 토대로 지혜로운 의견을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다영 올림.

※ 성별 남 여

※ 연령 ( )세

※ 교직경력? ( )년

※ 선생님의 전공은? ( )전공

※음악연수 참가횟수? ( )회

※ 음악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 1학년 ( )출판사

※ 음악실 보유현황?  있다  없다

※ 악기보유시설 현황?

[해당되는 곳에 모두 (v) 체크 해주세요]

① 국악기

장구	북	가야금	단소	대금	소금	거문고	소고	징	팽과리

② 서양 악기

리코더	오카리나	플루트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래식 기타	실로폰	큰북	작은북	탬버린	심벌즈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핸드벨	피아노	멜로디언	키보드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③ 그 외 악기( )



4-1. 그 이유는?

- ① 교과서 지도법 내용이 부족해서
- ② 개인적 지식이 부족해서
- ③ 시간이 없어서
- ④ 수업운영이 어려워서
- ⑤ 기타 의견 ( )

5. 주로 가르치는 악기는?

- ① 피아노 ② 타악기 ③ 리코더 ④ 단소 ⑤ 그 외 악기 ( )

6. 전통악기 지도에 대한 능력은?

- ① 자신있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한 편이다 ④ 매우 부족하다 ⑤ 전혀 자신없다

6-1 서양악기 지도에 대한 능력은?

- ① 자신있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한 편이다 ④ 매우 부족하다 ⑤ 전혀 자신없다

6-2.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 ① 전공이 달라서
- ② 연수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 ③ 연수를 받았으나 교육내용이 미흡해서
- ④ 관심을 갖지 않아서
- ⑤ 기타 의견 ( )

7. 기악활동과 타 영역과의 연계성을 적용하는가?

- ① 당연히 적용한다 ② 보통으로 적용한다 ③ 조금 적용한다
- ④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7-1. 한다면, 어느 영역을 주로 적용하는가?

- ① 이해 ② 노래 부르기 활동 ③ 음악 만들기 활동
- ④ 감상하기 활동 ⑤ 생활화

8. 기악활동을 위해 교과서 외의 활용지도 방법은?

- ① 시청각 자료 활용                      ② 교사의 시범연주 활용
- ③ 우수한 학생의 시범연주 활용
- ④ 연주회 관람 및 견학 조사 ⑤ 활용하지 않는다

9. 기악활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은?

- ① 바른 자세, 연주법 등의 기초적인 음악지식에 중점 지도
- ② 화성, 음감, 소리 등의 음악성 표현 향상에 중점 지도
- ③ 박자, 리듬, 장단 등의 테크닉 음악적 훈련 연습에 중점 지도
- ④ 가창학습 보강의 위함을 목적으로 중점 지도
- ⑤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도에 중점 지도

10. 기악합주 활동을 지도하는가?

- ① 지도한다                                      ② 지도하지 않는다

10-1. 지도한다면, 방법은?

- ① 교과서 위주 지도                              ② 교과서 이외의 교재로 지도
- ③ 교과서와 그 외의 교재를 병행하여 지도
- ④ 교과서 곡을 기악합주곡으로 편곡하여 지도
- ⑤ 기타 의견(                                      )

10-2. 지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① 악기가 부족해서 ② 악기를 다루지 못해서 ③ 학생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 ④ 시간이 부족해서 ⑤ 필요성을 못 느껴서



16. 기악 실기평가 결과의 활용은?

- ① 주로 성적에만 반영한다
- ② 교수-학습 계획과 방법 개선을 위해 쓰인다
- ③ 결과보다는 과정에 우선하여 학생의 열정과 노력을 파악하는데 쓰인다
- ④ 학생의 미흡했던 결과를 파악하고 보충하는데 쓰인다
- ⑤ 기타 의견( )

17. 앞으로 기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 ① 전문적인 기악 교사 배치
- ② 다양한 악기 연주법 습득을 위한 교재연구 필요
- ③ 음악수업에서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분리
- ④ 음악시간 수 늘리기
- ⑤ 기타 의견( )









